

3野 '이태원 국조' 일정 의결...이상민·윤희근 증인 채택

〈행안장관〉

〈경찰청장〉

민주·정의·기본소득당 전체회의...국힘 "여야 합의 파기" 반발 불참
27·29일 기관 보고·내년 초 청문회 진행...한덕수 총리 증인서 제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은 19일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날 달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 보고 대상이다.

89명의 기관 증인도 야당은 단독으로 일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에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여당측 불참을 질타하며, 증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경연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오지 못한다는 명분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으나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면서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 빈 여당 의석
이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경출신 고위직 확대...경찰 승진 연한 16→11년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58개 늘려
기본급 공안직 수준 상향...'경찰대 개혁안'도 논의중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또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총경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 조치는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관 신설을 발표하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등의 방안도 내놔왔다.

이중 경찰의 숙원이었던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도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남 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복수직급제는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순경 출신의 고

위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여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일반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평균 6만여원) 인상되며 총경 이상은 후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개혁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당 복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의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오늘 대승적·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회

의를 열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정청대 최고위원 등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서 나서면서 박 전 원장의 최종 복당이 이뤄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면에서 싸우겠다"며 "특히, 갈수록 경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특혜 의혹 감사

尹 정부 대상 첫 감사 결정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19일 참여연대 및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금분배 수급자 파악 고지문

광산이씨 화순파 훈"공"중회는 종원님께 중금분배지급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1.수급대상자 기준과 범위
 - 1) 2017년 10월 25일 발행한 화순파세보 정세보에 취직시,취성시,취성시 후손의 자(여:자로)로 등재된 자로 한다.
 - 2) 상(가)에 해당한 자로 출가한 여(딸)
 - 3) 상(가)에 해당한 자로 외국국적취득자 및 외국국적취득자(국적상실한자 제외)
- 2.수급대상 제출서류
 - 1) 제적등본 1통: 조부, 부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대구성 종원가족은 가족전체단위로 발급한다.
 -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조부, 부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대구성 종원가족은 단위로 발급한다.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수급대상자 은행통장사본 1통
 - 5) 장기외국취득자 및 외국국적취득자 제출서류
 - ① 한국제적등본 1통(조부, 부 기준발급)
 - ② 한국가족관계증명서 1통(조부, 부 기준발급)
 - ③ 외국취득,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
 - ④ 현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
 - ⑤ 수급대상자 은행통장 사본 1통
 - 6) 출가한 여성 제출서류
 - ① 친정용 제적등본 1통(조부, 부 기준으로 발급)
 - ② 친정용 가족관계증명서 1통(조부, 부 기준으로 발급)
 - ③ 수급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통
 - ④ 수급대상자 은행통장 사본 1통
- 3.상기 전체수급대상자는 중금분배신청서 추진위원회발급 1통(개인당작성)
- 4.제출서류기간
 - 1) 1차 접수: 2022년 12월 10일
 - 2) 2차(유예)접수기간: 2022년 12월 30일
- 5.신청처: 1차 서류접수기간내 구비서류비자, 미제출자, 22년 11월 20일 이후 출생자는 중금분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5.신청서류접수처: 우)61108 광주시 북구 용봉택지로13번길11 용봉대우2차 203동702호 이병철
- 6.문의전화: 1) 중금분배추진위원장 이병준 010-7651-3092
2) 중금분배추진위원총무 이병철 010-6822-6900

2022년 12월 20일
광산이씨화순파 훈"공"중회
중금분배 추진위원장 이병준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종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